

# 최찬식 소설의 변이양상 연구

류 승 렬\*

## 목 차

I. 서 론	III. 「해안」· 위기의식과 욕망의 구조
II. 「추월색」의 독자영합	1. 신소설의 위기의식과 가치관의 상실
1. 구체제 비판과 애정우위	2. 신분상승 욕구와 억압된성의 분출
2. 자기 동일시와 해피엔딩의 위안과 만족	
	IV. 결 론

## I. 서 론

신소설의 대표적 작가를 일컫을 때면 으레 이인직·이해조·안국선·최찬식 등으로 열거되는 흐름에서, 유독 최찬식에 대한 연구 성과만이 몇 몇 선학의 연구 만으로 한정되어, 그 실체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타의 작가들에 비해 최찬식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찬식 소설의 대부분이 '대중소설'로 평가되어 오면서 순수문학을 제외한 문학작품의 연구를 기피하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으리라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활자본 구소설·신작 구소설·신파소설·신소설 등이 혼재하면서 각축을 벌여오던 1910년대 현실을 주의깊게 고찰해 본다면, 이런 시대 상황

\* 부산전문대학 교수

하에서 직업적 작가로, 신소설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또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최찬식에 대한 평가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찬식의 작품 가운데, 「조선일일신문」에 연재된 뒤 단행본으로 나온 「추월색」(1912년)과, 잡지 「우리의 가정」에 연재된 「해안」(1914년)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문학을 독자와 사회와 관련시켜 파악하고자 할 때면 으레 성립되는 효용론을 적용시켜, 그가 작품에서 서술하고 있는 도덕적 당위성이 어떻게 변용되어 가는 가를 살펴 볼 것이며, 신문물 도입의 충격으로 내재되어 오던 욕망이 분출되는 당대 현실의 해명을 위해서 포스트-구조주의자 미셸 푸코의 이론이 분석에 사용될 것이다.

## II. 「추월색」의 독자 영합

### 1. 구체제 비판과 애정우위

해동초인 또는 동초라는 호를 사용하면서 문단활동을 시작한, 최찬식은 이미 합방 이전부터 작품활동을 전개해 온 이인직이나 이해조에 비해 늦게 작품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처녀작 「추월색」 이후 20여편의 작품을 발표한 신소설 작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 논할 「추월색」은 1903년 11월 일문판이 창간된 이후 국문판도 보강된 「조선일일신문」에 연재된 바 있으며<sup>1)</sup> 1912년 3월 13일 〈회동서관〉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뒤, 〈회동서관〉에서만 무려 18판을 박아낼 정도로<sup>2)</sup> 당시 독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작품이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린 바 있는 「추월색」을 대상으로, 작품의 어떤 면이 독자에게 공감되었으며, 또 어떠한 구성으로 독자에게 영합해 나갔나 하는 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최준, 한국 신문사론고 (서울: 일조각, 1982), p. 301

2) 하동호, 해동초인 소고 (시문학 52호, 1975), p. 77

여타의 신소설이 그러했던 것처럼, 「추월색」 역시 정임과 영창을 중심으로 남녀이합의 애정을 묘사하면서 봉건사회에 대한 비판을 잊지 않고 있다.

즉 갑오경장이 실패로 돌아간 후 더욱 어지러워진 현실과, 정치의 실정으로 인한 부패와 학정 등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 사회를 배경으로 구체제의 모순과 비리를 날날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묘사와 강도높은 비판은 여타 신소설에 비해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다.

보고서 「관하 초산군에서 거 이월이십팔일 하오 삼시경에 란민 천여명이 불의에 취집하여 관아에 충화하고 작석을 란투하고 관사와 민간 수비호가 연소하고 리민간 사상 이십여인에 달하여 야료란복홀으로 강계 진위터에서 병졸 일소터를 급파하여 익일 상오 십시에 초히 진압되었수온티함 군수와 급기 가족은 힘위 불명호을기 방금 조사중이오노 중년 종적을 부지호깃 수오며 민요주창자는 엄밀히 수칙호 결과로 장두오인을 포박하여 본부에 엄수호옵고 자에 보고함」<sup>3)</sup>

그리고 나아가 이시종의 면적을 이야기하면서, 권력쟁취의 이진투구가 행해지던 중앙관료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봉건체제의 부정부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옛과 지금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지금 갖치 밝은 세상’(p. 39) ‘우편이 발달된 지금 갖흐면 성안에 잇는 리시종 집을 언더게 못차져 전학리오만은’(p. 62)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옛날은 어둡고 부정적인 세계로 지금은 밝고 긍정적인 세계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토록 밝고 긍정적인 세계에서 작가가 현실을 보는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시 압록강을 건너 구경하고 계관역에 내려 멀리 계관산 송수산을 지 겸하며

(영창) 이곳은 일로전년 당시에 일본군이 터승리하던 곳이 오구려 니가 이곳을 지나가본지 몇회가 못되는데 밭서 황냥홀 고전장이 되얏네

(정임) 아……가려도호지 저 청산에 헤어진 용밍홀 장사와 총성된 병사의 비골은 모다 도장속 결문부녀의 움 쪽 슝들이 깃소구려.

(영창) 응 그러치만은 동양 힘복의 괴초는 이곳 승첩에 완전히 굶고 저렇게 철도를 부설하며 시가를 기획하여 점점 변화지가 되야가니 이는 우리 황칙인종도 차차 진흥되논 조짐이지오(pp. 95~96)

3) 「신소설·변안(역)소설」(서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8), pp. 21~22

이하 이 작품 인용은 각주를 달지않고 이 책의 면수만 표시함

즉 1904년 벌어진 노일전쟁에서 일본군이 대승리하던 곳이라는 말로 시작해, 동양 행복의 기초가 이곳 승첩에서 완전히 굳어졌다니, 한마디로 어설픈 친일 교조주의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으로 최찬식의 친일성 발언이 가장 고조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같은 친일성은 마적 왕씨를 호의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있는데도<sup>4)</sup> 엇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이러한 친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은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에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그 방편의 하나가 이미 기존 독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남녀이합형의 애정문제<sup>5)</sup>를 묘사함으로써 친밀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애정을 효와 대립시킴으로써, 불경이부를 내세운 정임의 열녀관이 결국 효보다 애정을 택하게 하여 부모에게 가르침받은 기성도덕률을 오히려 더 신봉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유교 문화권에서 유가지도를 담은 교훈적 의미의 효용론이 존재하고 있으며,<sup>6)</sup> 오히려 이같은 효용론의 이용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미 구소설에서부터 서서히 나타나던 효와 애정의 대립은, 「추월색」에 이르러 구체화되며, 이같은 애정우위현상은, 독자들의 흥미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구소설에서 이미 익숙해진 남녀이합형을 효용론적 구조 안에서 되풀이 함으로써 쉽사리 독자에게 영합해 들어갔다고 분석된다.

## 2. 자기동일시와 해피엔딩의 위안과 만족

효와 애정의 대립에서, 애정을 택하고 전개되어 가는 「추월색」은, 신결혼관과 신교육사상을 내세우며 당대 독자들의 기대 심리에 부응하기 위해 하나같이 수려하고 재능을 갖춘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즉 영창을 ‘준수한 용모가 관옥같은 호남주’(p. 60)로, 정임은 ‘은아호 티

4) 최원식, 1920년대 신소설의 운명(백영 정병욱선생 화갑기념 논총, 친구문화사, 1982)

당시 만주는 일개 마적에서 일본 육군의 후원으로 대군벌로 성장한 장작림이 지배하는 등, 마적이 되는 것을 일종의 등용문이라 할 정도의 분위기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5)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3), p. 65  
“「추월색」 역시 영웅의 일생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며 남녀이합형이다.”

6) 유약우, 중국문학의 이론 (서울: 법학도서, 1978), p. 205

도가어느모로 쫓아보던지 천성귀인의 집 규중에서 고이기론 자근아씨'(p. 2)로 묘사하고 있으며,

즉시 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니 그 과공이 일취월장하여 열여섯 살에 중학교 졸업하고 열아홉살에 문과대학 졸업하니 그 학문이 혼용한 청년 문학가가 되었는지라 스미트 니외도 지극히 깃버할뿐 아니라 영국문부성 관리들이 극구 찬송하니 학논자가 없더니(p. 63)

그 집에 여관을 정하고 위선 여관주인의게 일본말을 빙호니 원리총명이 과인하고 학문도 중학교 졸업은 되는 터이라 일곱달만에 못할말업시 능통할뿐 아니오 문법도 막힐 곳 업시 무슨 서적이던지 능히 보게되니 그 힘에 「소석천구」 일본너주 터학에 입학하였는데 그 심즙에는 항상 부모의 생각 영창이 생각 자괴 신세 생각이 현대 뒤뚱쳐서 주야로 간절할 터이라 그러한 퇴심즙에 공부도 잘 되지 아니하면만은 시험볼찌마다 그 성격이 평균점 일공공(—○○)에 쉼러지지 아니하여 힘마다 최우등으로 진급되니 동경너학 심계에 리정임이 일흠을 모를 슴이 업시 명예가 평장하더라.(pp. 42~43)

또한 영창과 정임을 빼어난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일상의 평범한 인물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 인물로 존재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전형이란 인물의 특성 가운데 어느 한 면만을 묘사 강조할 때 생기는 것으로, 이 경우 인물의 성격이 대부분 경직화현상을 빚게 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정임과 영창을 전형적(Typical)인 인물로 묘사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작품을 이끌어가는 프로타고 니스트인 정임과 영창을 보통사람과 다른 준수한 용모의 수재로, 천성귀인으로 묘사함으로써, 소설을 읽는 독자의 기대심리에 부응시켜, 독자가 작품을 읽어가는 동안 만이라도, 이상화된 인물과, 독자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기만족과 위안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즉 고유한 창작물로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계로 가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sup>7)</sup>이라는 견해를 수용할 수 있다면, 소설을 읽어 가면서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맛보는 동시에, 독자 자신이 암담한 현실에서 도피하여 자기만족과 위안의

7) Robert Escarpit, La Révolution du livre(임문영역, 보성사, 1985), p. 50

시간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만족과 위안의 시간을 더욱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작가는 해피엔딩을 잊지 않고 있다.

「추월색」의 마지막 장면은 영창, 정임을 비롯한 양가 부모 모두가 무사히 만나, 부벽루에서 한 잔 술에 정회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추월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소설이 이처럼 행복으로 채워진 만족스런 상태로 작품을 끝냈는가?

우선 한국 고전소설에서도 빈번히 나타나는 해피엔딩에 대한 언급을 보자.

행복한 결말은 한국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임이 확인되며 이것은 한국인의 의식에 내재된 원령작해로 인한 공포감과 그 공포감에서 유래된 원한기의 사고에서 형성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8)</sup>

행복한 결말은 한국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으로, 신소설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는 비록 양식이 새로워졌고, 새로운 문화의 수용에 따른 새로운 감각이나 문제에 접근하려는 방법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일부 신소설 속에 고대 소설적인 화소가 전승되어 있다.<sup>9)</sup>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추월색」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소설이 행복한 결말을 제시하였고, 또 이러한 행복한 결말로 끝난 작품이 인기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답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관점을 작가의 시점에서 독자의 시점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보일수록 독자들은 질서있고 조화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반델하야그의 말처럼, 대중은 새롭고 낯선 문화현상에 의한 충격을 받기를 피하려 하고, 그보다는 익숙한 전통적인 놀이의 표현(행복하고 감상적인 놀이의 표현)에 의해 편안히 쉽게 즐기고자<sup>10)</sup> 하는 욕구와 부합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애초 친일적인 가정분위기 하에서 자란 최찬식에게 현실인식의 바른

8)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관악어문연구 제3집, 1987), p. 242

9) 김중하, 개화기소설연구(I) (부산대학 문리과대학 논문집 제17집, 1978), p. 13

10) 강현두, 대중문화의 이론 (서울:민음사, 1980), p. 105

답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작가가 추구한 세계관, 소설내용의 사건 변화에서 느낄 수 있는 통속적 흥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구체체 비판으로 카타르시스적인 만족을 주고, 전형적 인물의 제시로 자기동일시의 위안을,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독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줌으로, 독자들의 구미에 영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추었기에 「추월색」은 가장 인기있었던 신소설의 하나로 자리굳힘 했다고 분석된다.

### III. 「해안」· 위기의식과 욕망의 구조

#### 1. 신소설의 위기의식과 가치관 상실

1906년 2월 10일자 <대한매일신보>의 광고에, ‘신소설이란 명칭이 처음 게재되면서, 이인직의 「혈의 누」 이후 일반화되기 시작하던 신소설과, 1907·8년 전후하여 간행되면서 애국적 계몽성을 견지해 온 역사·전기류 소설들이 등장하여 활발한 전개를 해오다가, 합방을 계기로 신소설은 주춤하고 역사·전기류는 자취를 감추게 된 공간에 활자본구소설을 비롯한 신작구소설 그리고 번안 신파소설 등이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1900~1910년대가 신소설·구소설·그리고 근대소설까지 공존했던 문학사의 교체기였다는 점을 주시한다면, 이 시기에 등장한 각 양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소설 위기의식의 규명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즉 일제의 무단통치하인 19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활자본구소설의 문을 연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표적 신소설 작가인 이해조다. 그는 판소리 개작소설인 「옥중화」 「강상련」 「연의 각」 「토의 간」을 「매일신보」에 연재했고, 이 연재가 끝나자 첫 작품으로 1912년 8월 10일 유일서관에서 「불로초」가 간행된 이후 수많은 단행본 고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발간된 활자본 구소설 306종 가운데, 1910년대에 출판된 것이 196종 1920년대에 출판된 것이 74종, 1930년대에 6종 등으로 나타나 1912년~1918년에는 매해 30종 이상이나 새로운 작품들이 출간되었다<sup>11)</sup>는 사실은

11) 권순용, 한국근대문학사의 쟁점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0), p. 183

이 시기 활자본구소설의 성행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신소설 작가인 김교재가 「란봉기합」을 이해조가 구소설 「홍장군전」을 내놓아 신·구소설 작가의 확연한 분리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sup>12)</sup>

또 출판물을 조사해 보더라도 신·구소설은 비슷한 분량으로 출판되었지만, 거둬 찍어낸 판수로 보아 구소설이 훨씬 웃도는 추세를 보여준다.<sup>13)</sup>

이상의 고찰에서 처럼, 활자본구소설과 신작구소설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에, 또하나 번안 신파소설이 그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다.

즉, 후일 이광수의 「무정」(1917년)이 연재될 매일신보에, 1912년 7월부터 1913년 2월까지 菊地幽芳의 「己が罪」를 번역한 「쌍옥루」와, 역시 동 지에 1913년 5월 부터 10월까지 일차 연재하고 속편은 19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재한 尾崎紅葉의 「金色夜叉」를 번안한 「장한몽」을 게재하여 장차 이어질 신파소설의 서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장한몽」의 경우는, 「추월색」이 신파무대에 올려져 공연되어 인기를 모은 것처럼, 1913년 8월 극단 「유일단」에 의해 첫공연된<sup>14)</sup> 뒤 수차례 공연되었다.

따라서 이같은 번안 신파소설이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관념 좌표로서의 '사랑'의 승리를 확인시킨다는 작위적 결말을 지켜보면서, 수용대중은 신파적인 '눈물' 뒤에 알팍한 해소적 위안에 이르렀다.<sup>15)</sup> 또는 당시 독자들의 일반적 이상의 일부를 남녀관계, 부자관계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었다.<sup>16)</sup>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조중환이 원작과 달리, 재결합을 갈망하는 독자심리를 심분 활용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맺는 등 독자의 구미에 맞도록 영합해 들어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최찬식의 「해안」이 발표될 당시인 1914년은 이미 활자본구소설과 신작구소설, 번안신파소설 등이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던 시기였기에, 이에

12) 이은숙, 활자본 구소설에서의 애정소설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부속대학원, 1986), p. 10

13) 전개서, p. 11

14) 「매일신보」 1913년 8월 8일

15) 강영희, 일제강점기 신파양식에 대한연구 (서울대학 석사논문 97집, 1989년), p. 34

16) 임화, 문학의 논리 (서울: 학예사, 1940년)

위기의식을 느낀 신소설 역시 작품 내부에서 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기에 「해안」에 오면, 「추월색」에서 보인 강도있는 구체제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상을 비롯한 기존 체제가 붕괴되는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놈아! 이게 무슨 행위냐! 양반놈들은 모두 행세가 이 모양이나? 우리같은 개똥상놈일지라도 내 집 종 노릇은 합치연정 이런 개같은 행위는 아니한다. 네가 이놈 대가리에 갑투 뛰야기를 뒤집어쓰고 현숙한 며느님을 이 같이 겁혹코자 하느냐? 이놈아, 이것 받아라! 나는 이길로 네 집이 하직이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그 집 하인 경천이라.<sup>17)</sup>

황참서가 며느리인 경자를 불러서 상지를 하고자 하는 판에 달려든 하인에게 욕모방망이 세례를 받는데 이르면, 이미 봉건적 질서가 붕괴된지 오래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체제를 위해 존속해 오던 효용론적 문학관마저 퇴조현상을 나타내고, 오히려 은밀하게 오락성을 지닌 미적쾌락을 위한 방편으로 변용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 2. 신분상승 욕구와 억압된 성의 분출

1910년대는 우리 소설사에서 실질적으로 신소설이 사라지고 왜색 변안소설이 범람하던 시기<sup>18)</sup>라고 볼 정도로, 당시 위기의식을 느꼈던 신소설은 활로를 찾기위해, 새로운 문명이기와 신사상을 작품 속에 장식처럼 늘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꿈직스러운 카니벌리즘의 난무<sup>19)</sup>, 기존 도덕 윤리의 파괴로 인한 충격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기류에 편승하여, 그동안 제도권에 의해 억눌러오면서 잠재되어 있던, 욕구와 욕망들이 꿈틀거리면서 작품 위로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우선 신분상승 욕구부터 알아보자.

17) 한국 신소설전집 4권, (서울: 을유문화사, 1969), p. 303

18) 최원식, 민족문학의 논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p. 69

19)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서울: 흥성사, 1981), pp. 156~159

- (A) 그 부인은 본래 한미한 농민 정씨의 아내로서 그 남편과 부평 오류동서 살며 농업을 힘써 그러저럭 생활을 하느라니, 빈궁한 가계를 면하기 어려워…인척항에 가서 남의 집 결방을 얻어듣고 밤이면 바느질품을 판다. 낮이면 해관에 나가 헤어진 곡식을 줌는다. (p. 265)
- (B) 대성의 부친 황참서는……조부모 덕분에 비록 재산은 요부하나…벼슬이라고 차함·탕전 하나 얻어 쓴 것도 역시 부인의 주선으로 된 것이다. (p. 293)

(A)와 (B)에서 처럼 두인물의 가문과 사회적 지위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작품이 전개되면서, 대성이가 경자와의 혼사문제를 꺼내자유모가, ‘문벌이 상등치 못한 경자와 혼인을 하실 리가 있느냐?’ (pp. 280~281)라고 말하는 부분과, 모친이 ‘그러나 그 집에서 우리같이 지체 낮은 사람과 결혼을 할 리가 있다구?’ (p. 287)하면서 새삼스럽게 걱정하는 부분에서 현격한 신분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성이 경자와 결혼 함으로써, 경자의 신분상승 욕구는 달성되고 행복을 이루지만 생각지도 않던 시아버지의 해거로, 경자의 행복은 급진적으로 불행에 이르고, 작품이 끝나도록 해피엔딩은 기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전전개를, 신파극에서는 서양의 멜로드라마에서와 같이 현격한 차이의 두 신분을 대비시키면서, 낮은 신분의 상승욕구가 불행을 자초케 한다<sup>20)</sup>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인기를 다진 신파소설과의 영향관계도 고구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찬식의 여타 소설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데 비하여, 「해안」의 경우 행복된 결말이 없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개화기의 물질적 정신적 충격으로, 여태껏 제도적 관념하에 억압되어 오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면, 「해안」의 경우 가장 개화된 여성으로 신교육을 받은 ‘소위 조선 신부인’을 매도하는 장면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근일의 소위 조선 신부인이라 하는 여자들을 보면, 하나도 문명한 지경의 실지를 밝는 자이 없고, 다만 허사시가마에 보석 핀이나 꽂고, 손가락에 금반지나 두서넛 끼고, 화려한 의복에 반짝반짝하는 금시곶줄이나 늘어 남자의 눈동자를 현혹하게 하는 것으로 성사를 삼을 뿐이라……날마다 생각하는 바는 연극장 구경이나 다닐 생각, 밀매음이나 할 생각, 툭 하면 이혼이나 할 생각, (p. 278)

20) 유민영, 개화기 연극사회사(서울: 새문사, 1987), p. 115

내면적 성장이나 양식보다는 오히려 결구법과 관능에 만족하는 여성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곧 신부인들이 '남자의 눈동자를 현황하게 하는 것으로 성사를 삼을 뿐' 이라든가, '밀매음 할 생각' '톡하면 이혼이나 할 생각' 이라는 묘사를 통하여, 이미 제도권 하에서 통제되어 오고 억압되어 오던 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암시로 읽어야 할 것이다.

말을 바꾸면 전통사회에서 억압되어 오던 욕구가 개화기에 이르러 서구 신문물의 유입과 아울러 정신적인 면에서 다각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본다면, 인간욕구가 다양화되기 시작했을 것이며, 그가운데 하나인 억눌린 성적 욕구가 노골화되기 시작했다고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작가 암시 이후 황참서의 행위에 이르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까지 발전한다.

「아버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망령이시지 이게 웬일이십니까? 제 말씀들 잠깐 들으십시오. 모든 동물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은 인륜이 분명한 까닭이니, 사람이 되어 만일 인륜에 득죄할지면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아버님께서 어찌 생각지 못하시고 감히 이런 일을 행코자 하십니까?」 하며 경자는 간절히 말하나 그 지경에 이르른 황참서야 어찌 그말이 귀에 들어갈 리 있으리요. (p.303)

작가는 집안에 풍파가 나려면 별별 괴상한 일이 뜻 밖에 생긴다고 전제는 하고 있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하고자, 아들을 억지로 일본 유학보내고 두 번이나 며느리인 경자를 불러 어찌어찌 하고자 하는 장면을 연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황참서의 욕망은 하인인 경천이가 뛰어듬으로써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1910년대에 이미 이 정도로 대담한 구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처럼 제도권하에서 억압되어져 온 성적인 욕망은, 동서양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보자.

서양의 근대문화와 근대인은 「성」에 대하여 어떤 「죄의식」과 늘 결부되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토록 훈련되었다는 논리다. 그것은 이미 17세기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19세기 청교도 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서, 「성」과 「성욕」에 대하여 「억압과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sup>21)</sup>

21) 김형효,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서울: 인간사랑, 1990). pp.402~403

「성의 역사」를 통하여, 「성」이 인식의 영역으로 서양사회에서 구성되어졌는가를 구조주의적 진술 방식에 의해 밝히고, 오늘날 서양의 「성과학」과 성의 본질을 존중하는 「관능의 술」을 비교함으로써 이른바 「성과학」의 현주소가 인간에 관한 「현대문명의 억압」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해석하려는 미셸 푸코의 견해처럼, 「성」에 대하여서는 죄의식과 결부시켰다는 점을 다니엘 벨도 말하고 있다.

신학이 사상의 테마가 되지 않는 후에도, 죄의식—특히 성적인 행위에 대한 죄의식감—이 그후 백년 동안이나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즉 종교적인 죄의 관념이 미국인의 성격에 스며들고 있었다.<sup>22)</sup>

이처럼 동서양이 성의 문제에 대해 죄의식과 연결시켜 터부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권력 즉 지식」의 통제 테이타가 되고 있다고 푸코는 보고 있다.

따라서 여타의 신소설에서 보이던, 도덕적 윤리적인 무장으로 억압되어져 온 성적욕망들이 「해안」에 이르러 분출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여튼 이처럼 리비도의 분출을 표면화시킨 작가역시, 욕망의 지배를 받는 황참서를 정신병 환자로 처리하여 수용실에 가둠으로써 사회와 격리시켜 버린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젖은 중세기 말 사람들은 광인의 영혼은 짐승의 포로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였고, 정신에 대한 유혹적인 타락의 결과라고 여겼다. 이 모든 「광기」가 인간의 지나친 욕망에서 온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누구나 욕망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고 그것이 큰 유혹이기에 「광기」는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광인」은 지옥에서 볼수 있는 인수양면의 모습을 한 괴물이다. 「광기」는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 지지 않는 「동물성의 상징」이었다.<sup>23)</sup>

「광기의 역사」를 통하여 서양사의 문화와 시대적 사고 유형을 도식화하여 현재의 역사로서의 우리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려는 문화인식론의 철학적 동기에서 출발한 푸코의 고찰은, 시대별로 「광기」에

22) Daniel Bell,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김진욱 역, 문학세계사, 1990), p. 82

23) Michel Foucault, *Madness and Civilization* (김부용 역, 인간사랑, 1991) 제1장 참고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미친자를 「광인의 배」에서 「광인의 병원」으로 변화시킴으로 「광인」은 「정신적 나병환자」 취급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황참서 역시 ‘정신병 환자 수용실’에다 가두어 버림은, 사회와의 격리를 말하는데, 「병원」과 「감금제도」에 의해, 광인을 사회와 격리 시킴은 무엇을 말하는가?

푸코에 의하면 그것은 부르조아 시대의 도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즉 부르조아 시대의 가치는 오직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 이외는 다른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인은 낭인이나 또는 알콜중독자와 같이 「생산성」이 전혀없다. 생산성이 없는 자는 사회를 낭비시킨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병원은 광인을 의학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비생산적인 자들을 격리 수용시켜 생산성이 있도록 교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sup>24)</sup> 그렇다면 이런 논지 전개는, 황참서의 행위 해명에 많은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즉 황참서의 인물묘사에서, ‘투비하기가 짝이 없는 고로 어찌되는 세상인지 이두사를 어찌하면 잘 될는지 전연히 알지 못하고...’ (p. 267), 또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라 밤이나 먹을 뿐이요’ (p. 293) 라는 식이니, 사회성이 거세된채, 육망의 지배만 받다 후일 정신병 환자로 판명되어, 「생산성」없는 자로서 격리 감금 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기를 상업주의에서 초기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해안」에서 제기되는 ‘돈’(돈으로 사는 벼슬)문제는, 동시대에 경험한 신파소설 「장한몽」과 비교해 볼 때, 물신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기에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인물로 황참서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처럼, 그동안 제도권에 의해 억압되어 오던 성적욕구가 황참서를 통하여 표출되었지만, 작가는 그를 정신병자로 취급하여 사회와 격리 수용시켜 버림으로써 그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억압된 본능의 분출은, 개화기에 잇달은 정신적 물질적 충격 속에 본능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중의 내밀한 욕구와 맞닿아 독자들의 인기에 부응했으리라 여겨진다.

24) Michel Foucault, 전제서, pp. 51~72

## V. 결 론

최찬식의 대표작인 「추월색」과 「해안」을 중심으로, 작품의 변이양상을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추월색」은 여타 신소설에 비해 봉건체제의 부정부패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옛과 지금을 대비시키어, 지금을 밝고 긍정적인 세계로 묘사하고 있으나, 작가친일성으로 그 현실을 호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친일성은 효과 애정의 대립을 기저로 한 남녀이합형을 효용론적구조 안에서 되풀이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영합해 들어갔다.

둘째, 전형적 인물을 강조할 때 생기는 경직화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영창과 정임을 이상화된 인물로 묘사함은, 독자에게 자기 동일시로 만족과 위안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혼란한 현실일수록 조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대중취향에 맞추어 해피엔딩으로 끝맺음은, 구체제 비판으로 인한 카타르시스적인 만족감과, 자기동일시의 위안과 함께 독자의 구미에 영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었기에 「추월색」이 가장 인기 있었던 신소설의 하나로 자리 굳혔다고 분석된다.

셋째, 「해안」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미 활자본구소설과 신작구소설, 변안신파소설까지 인기를 확장하면서 신소설과 각축을 벌이고 있었기에, 충·효·열의 유교적 윤리관에 의한 도덕적 당위성이 흔들린 것과함께, 작품에서도 봉건적 질서의 파탄은 물론, 효용론적 문학관마저 교훈적 입장에서 쾌락으로 변용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경자의 신분상승 욕구가 불행으로 치닫고, 작품이 끝나도록 행복된 결말이 기약되지 않음은 여태껏, 제도권에 의해 억압되어져 오던 성에 대한 욕망이 분출되었기 때문이며, 이같은 욕망을 표출시킨 황참서는 정신병 환자로 「병원」에 「감금」되어 격려되는데, 이는 초기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산성」없는 인물의 소외현상으로 풀어 볼 수 있으며, 「돈」 문제와도 연결지워 분석해 보더라도 장차 물신이 지배해 가는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런 억압된 본능의 분출은 개화기에 잇달은 정신적, 물질적 충격속에 본능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내밀한 욕구와 맞닿아 인기에 부응했으리라 여겨진다.